

법 어

바람이 향기롭고 두륜산 물소리에도 봄기운이 가득합니다. 저마다의 시간을 스스로 점검해 왔다면, 우리에게 봄소식은 자연만물이 전해주는 희망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생동하는 봄기운이 다시 우리의 곁으로 다가왔지만, 생명의 고귀함은 사라졌다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서산대사께서 500여년 동안 우리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신 선조의 고마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부족한 마음들이기에, 순간순간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함께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상생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통찰하고 선택하는 삶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삶이 자비보살행입니다. 수행이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일이기에, 이 길은 제불보살의 길이요, 역대 조사의 길이며,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수행자 모두가 생명의 존엄을 언제나 깊게 품어가면서, 국가와 국민의 평온을 위해 어떻게 정진해야 하는지를 진중하게 점검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대의 요구를 숭선수범으로 해소해 나가고, 오늘의 실천들을 청허당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후대의 도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청허당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푸른 숲길이 되어 뜨거운 날엔 선선한 그늘이 되어주고, 나태한 시간에는 예리한 경책으로 늘 함께할 것이기에, 의승께서 지키고자 했던 숭고함을 함께 계승해 나아갑시다.

이러한 공덕과 인연은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을 환하게 열어줄 것이며, 차별 없는 평등, 그리고 소통과 화합이라는 수승한 정신문화를 고르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불자들의 큰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조화롭게 시대를 읽어가고 함께 손잡고 실천하는 지혜로 정진해 나아갑시다.

오늘 청허당 서산대사의 497주년 탄신대제를 맞아, 선조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려 하셨던 소중한 생명가치와 호국애민의 정신을 마음 깊이 돌아보는 참된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지혜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인연으로 일상의 삶에 평화가 깃들고 우리의 살아가는 정토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4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